

# 뉴욕장신 뉴스레터



**제 4 호**  
2014년 8월 1일

## 뉴욕장로회 신학대학(원)

KPCA,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NY)

277 Closter Dock Rd., Closter, NJ 07624

Tel : 201-660-7778 Fax : 201-660-7779 홈페이지 <http://www.nypts.org>

학장 유재도 박사 / 학감 이기백 박사 / 총무처장 임선순 목사

## 뉴욕장로회 신학대학(원) 2014년 가을학기 신입(편입)생 모집요강

KPCA,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NY)

**2014년 가을학기 전형일 : 2014년 8월 28일**

본 신학대학은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가 직영하는 학교로서 1978년에 설립하여 지금까지 35년간 수많은 목회자, 선교사, 교수등 훌륭한 영적지도자를 양성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신학대학입니다. 본 대학 교역학석사(M.Div.) 과정을 졸업한 분은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고, PCUSA 교단에서도 목회와 선교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군 군목으로도 활동하실 수 있고, 한국에 가실 경우에는 영락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주안교회 등이 속해 있는 장로교 통합측 교단에 이명하여 목회할 수 있습니다. 본교와 Blanton-Peale Institute와 상호교육협정을 체결함으로 I-20Form을 발행하여 면학에 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모집학과</b>	신학사 (B.Th.) 교역학석사 ( M.Div.) 신학석사 (Th.M.)
<b>제출서류</b>	입학원서 1통,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신앙고백서, 이력서, 서약서 각 1통씩, 추천서 (B.Th는 담임목사, M.Div는 노회장), 전형료 \$50. <b>* 서류는 본교 홈페이지(<a href="http://www.nypts.org">http://www.nypts.org</a>)에서 다운로드</b>
<b>입학전형일시</b>	2014년 8월 28일(목) 오전 10시 본교 사무실 주소: 277 Closter Dock Rd., Closter, NJ 07624
<b>전형과목</b>	성경, 영어, 일반상식, 면접.
<b>개강일</b>	2014년 9월 2일(화) 오전 9시 본교 강의실 주소 : 370 Demarest Ave., Closter, NJ 07624
<b>강의시간</b>	화요일, 목요일 (오전 9시~ 오후 7시 50분)
<b>원서교부</b>	<b>본교 사무실 : 277 Closter Dock Rd., Closter, NJ 07624)</b> 전화 : 201-660-7778 Fax : 201-660-7779 홈페이지 : <a href="http://www.nypts.org">http://www.nypts.org</a>
<b>상담문의</b>	<b>학 감 : 이기백 목사 732-266-9013</b> <b>총무처장 : 임선순 목사 917-754-5220, 718-921-3277</b>

## 뉴욕장로회 신학대학(원) 교수소개



**학장 유재도 교수**  
(기독교 교육)



**학감 이기백 교수**  
(실천신학)



**총무처장 임선순 교수**  
(역사신학)



**김경희 교수**  
(신약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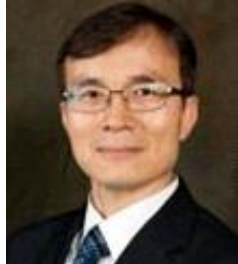
**김건철 교수**  
(선교신학)



**김삼천 교수**  
(구약신학)



**김유태 교수**  
(신약신학)



**김윤권 교수**  
(구약신학)



**김종훈 교수**  
(실천신학)



**김희건 교수**  
(조직신학)



**민경수 교수**  
(실천신학)



**소기범 교수**  
(영성신학)



**손안젤라 교수**  
(상담신학)



**전광성 교수**  
(구약신학)



**백성철 교수**  
(아미장 분교)

김건철 교수	Boston University (Th.D. cand.) 장로회신학대학원(M.Div.,Th.M.) 영남대(B.A.)
김경희 교수	장로회신학대학원(Th.D., Th.M., M.Div.) 이화여자대학(M.A.) 서울대(B.A.)
김삼천 교수	Canada Christian College(D.Min.)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숭실대(B.A.)
김유태 교수	Drew University (Ph.D.) 장로회신학대학원 (M.Div.) 연세대 (B.A.)
김윤권 교수	장로회신학대학원(Th.D cand. M.Div.) 연세대(Th.M. B.A.)
김종훈 교수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D. Min.)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M.Div.) 계명대 (B.A.)
김희건 교수	Drew University (Ph.D.)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서울대(B.A.)
민경수 교수	Assemblies of God Theological Seminary(D.Min., M.Div.) 서울대(M.A., B.A.)
소기범 교수	Chicago Theological Seminary(Ph.D)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숭실대(B.A.)
손안젤라 교수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Ph.D., Th.M., M.Div.) Drew 신학교수
유재도 교수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Mi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Th.M) New Brunswick Seminary(M.Div.) 장신대 (B.Th.)
이기백 교수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D.Min.)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계명대(B.A.)
임선순 교수	뉴욕장로회신학대학원 (Th.M., M.Div.) 연세행정대학원(M.P.A), 성균관대 (B.A.)
전광성 교수	영국 University of St. Andrew(Ph.D.) New Brunswick Seminary(M.Div.). 연세대(B.A.)

# “두려워하지 말라”



학장 유재도 박사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로 인하여 온갖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인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귀한 책을 한권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Know Fear"(2003년 출판)입니다. 저자는 Ed Young Jr.입니다. 그 책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서론에서 저자는 먼저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공포증(phobia)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거미 공포증, 비행기 공포증, 공간 공포증, 치과 공포증, 공공 연설 공포증, 죄에 대한 공포증, 거짓말 공포증, 장모에 대한 공포증, 교회 공포증, 새털로 간지럼 탈 때의 공포증,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공포증, 노란색 공포증, 홀로 사는 것에 대한 공포증, 날씬한 것 공포증, 결혼 공포증입니다.

본론에서 저자는 온갖 두려움을 정리하여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저자는 그 여섯 가지의 두려움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그 여섯 가지 두려움을 영어로 그대로 옮깁니다. 그리고 저자가 말하는 해결책을 간단하게 함께 옮깁니다.

종 류	해 결 책
1. Fear of Helplessness	God is in control. God is trustworthy.
2. Fear of the Future	Stand firm. Take the next step. Step out boldly.
3. Fear of Commitment	Commit your way to the Lord.
4. Fear of Failure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Knowing God's Word, understanding it, and living it out.
5. Fear of Loneliness	Spiritual longings, relational longings, eternal longings.
6. Fear of Death	Believing the resurrection and the judgment.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크게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Fear of God)만을 가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 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두려움도 가지지 않게 됩니다.”(When you fear God, you have nothing left to fear, not even fear itself.) (p.186)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자에 의하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들로 표현할 수 있

습니다: the dad(하나님 아버지) connection, a matter of recognition, a balance act, a matter of accountability, a matter of obedience, a matter of commitment.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균형과 책임감과 복종과 헌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저자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Direction, Compassion, Blessings, Contentment, Maturity.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열정을 갖게 되고, 축복을 받고, 참된 만족을 누리며,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일로 인하여 온갖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자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fear not") 이라는 말이 189번이나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전에 어떤 다른 어떤 설교자는 성경에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계속하여 두려워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무서운 죄악이 됩니다. 끝으로, 저자는 책의 서론에서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언급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여기에 적어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항상 굳게 믿고 기억하여야 될 말씀입니다.

(잠언 3: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s straight.)

(요한복음 16:33)"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Be of good cheer, I have overcome the world.)

얼마 전 새벽기도회에서 내 마음에 다가온 성경 말씀을 적고 이 글을 마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보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 해외한인장로회 뉴욕장로회신학대학(원)

KPCA,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NY)

35년의 역사와 전통의 뉴욕장신

## 2014년 가을 학기 신입(편입)생 모집

1-20발급



본 교를 졸업하면 한국 대한 예수교 장로회(통합)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들과 동등한 자격과 학위를 취득하며, 미군 군복으로 안수 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미국장로교회(PCUSA) 교단 교회를 담임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통합측 목사로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교는 남,북미와 유럽전역 전세계에 교회를 갖고 있는 해외한인장로회교단 소속 신학교입니다.

## “신앙생활의 진수를 말한 선지자 미가”



김윤권 교수  
뉴욕장신 구약신학 교수  
장신대(Th.D. Cand. M.Div.  
연세대(Th.M., BA)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가서 6:6-8)

### 1. 서론

소예언서 12권 가운데 사회정의를 외친 예언자 두명을 든다면 아모스와 미가를 들 수 있다.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인 벰엘에 가서 정의를 외쳤다. 반면 미가는 남유다 모레셋 출신으로 남유다의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외쳤다. 아모스는 주전 760년경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Ⅱ세 때 주로 예언활동을 하였으며, 미가는 아모스보다 60년 후인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716-687) 때 예언활동을 하였다. 그래서 미가를 “남왕국의 아모스”라고도 부른다. 예언자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한 예언자는 이사야였다. 이사야는 귀족 출신으로 예루살렘 다윗 왕가의 예언자라고 한다면 미가는 순박한 농촌 출신의 평민 예언자였다. 이사야는 시온 곧 예루살렘에 희망을 두고 있었지만 미가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였다. 당시의 시온신학에 의하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미가는 남유다에 사회정의를 실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도 망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그러므로 예언자 미가는 기존의 신학적 입장에 대하여 저항하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그만큼 예언자 미가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으며, 이 거룩한 분노를 말씀의 불로 화하여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사회에 쏟아 부었던 것이다.

미가와 동시대의 예언자인 이사야는 상류층의 관점에서 정의를 외쳤다면 미가는 서민의 관점에서 사회적 정의를 외쳤다. 이사야와는 달리 미가는 사회적 정의에 편중되어 있었다. 오직 지도자들의 물질에 대한 욕심과 경건치 못한 욕망이 빚어내는 정의에 대한 무관심을 고발하였다. 예언서 미가는 비록 7장으로 구성된 짧은 책이지만 다른 어떤 예언서보다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첫째, 미가는 평화를 외쳤다.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세상은 이 나라 저 나라가 칼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지 아니하며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평화, 곧 살롬의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미4:3) 둘째, 미가는 메시야의 오심을 외쳤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야가 탄생한다는 것이다.(미5:2) 마지막으로 미가는 정의를 외쳤다. 오직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구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외쳤다.(미6:8) 여기에 예언자 미가의 예언의 진수가 담겨져 있다.

### 2. 예언자 미가

예언자들의 이름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대체로 예언자들은 그 이름의 뜻대로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미가의 히브리식 이름은 미카야(Micaiah)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미가(Micah)로 부르게 된 것 같다. 히브리어로 미(mi)란 누구(who)라는 뜻이다. 히브리어로 카(cah)는 같은(like)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야(ya)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킨다. 그러므로 예언자 미가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Who is like God?)라는 뜻이다. 예언자들 가운데 자기 이름을 예언에 사용한 예언자 중에 미가가 유일하다.(미7:18)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

고 사랑을 행하는 신이 누가 있겠는가? 라는 의미이다.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은 인간의 삶에 관심이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백성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미가는 여호와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겠느냐고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다. 미가는 모레셋 출신이다.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35km에 있는 조그마한 성읍으로 블레셋 땅이 있는 지중해 연안 평야와 유다 산지 사이에 있는 곳이다. 그래서 모레셋 가드라고도 불렀다. 모레셋은 평야가 있는 지역으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교역통로가 그 근방에 있었다. 그래서 비록 시골 지역이었지만 미가는 국제 정세에 대하여 쉽게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도시문화에 대한 부패와 종교의 타락을 듣기도 하였고 때로는 확인차 가서 목도하기도 하였다. 미가는 예루살렘의 직업적인 종교가와 제사장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 광분하는 모습도 보았고 권력가들이 자신의 힘으로 약자들을 탄압하는 것을 보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미가는 그러한 불의를 목격하고는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를 여지없이 그의 메시지 안에 쏟아 부었던 것이다.

### 3. 역사적 배경

미가는 남유다의 요담(750-732) 아하스(732-716) 히스기야(716-687) 왕 때 예언활동을 하였다고 한다.(미1:1) 당시 국제적인 정세는 이렇다. 앗수르의 디글랏빌레셋3세(745-727)가 큰 세력을 형성하여 군대를 이끌고 서진하였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베가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앗수르의 서진에 대항하고자 동맹을 체결한다. 이것을 Syro-Ephraimite 동맹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왕 르신이 유다의 아하스 왕을 찾아가 당신 나라도 동맹에 가입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유다의 아하스 왕이 거절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왕 르신이 유다를 침공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하스 왕은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셋3세를 찾아가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요청한다. 이때다 하고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셋3세가 서진한다. 그래서 아람이 주전732년에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그의 군대장관이었던 호세아에 의하여 살해되고 호세아의 정권이 들어선다. 호세아는 친 앗수르파였다. 앗수르 정권에 의하여 세워진 허수아비 정권이었다. 그런데 앗수르의 디글랏빌레셋3세가 죽자 호세아는 앗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중단한다. 이 사실을 알고 앗수르의 디글랏빌레셋3세에 이어 왕이 된 살만에셀V세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한다. 이때가 주전725년이다. 3년간 포위하고 있다가 살만에셀V가 그만 주전722년에 죽는다. 그러자 그의 아들 사르곤II세가 왕이 되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이때 남유다는 아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된다. 형제국가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킨 앗수르가 두려워서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 종교개혁을 단행한다. 그리고 성읍을 요새화하고 블레셋 두로 시돈 등의 나라들과 반앗수르 동맹을 체결한다. 또한 히스기야 왕은 앗수르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하여 성밖의 기혼샘에 있는 물을 실로암 연못으로 끌어오기 위하여 수로공사를 단행한다. 이 공사가 주전702년에 완공된다. 결국 주전 701년에 앗수르의 사르곤II세의 왕을 이어 앗수르의 왕이 된 산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한다. 앗수르의 산헤립 왕의 침략은 대단하였다. 어찌나 강하고 무서웠던지 유다 성읍 46개가 정벌당하고 만다. 백척간두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 사실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어 앗수르군사 18만5천명을 시체로 만들어 버린다.(사36-39, 왕하18-20) 그러므로 당시의 상황은 국제적으로 정세가 불안하고 나라의 경제도 어려운 때였다.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공동체 의식은 와해되어 가고 있었다. 나라는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위기의 상황 이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권력가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한탕주의에 고리대업, 뇌물수수, 부당한 판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 및 사회적 부패와 불의가 만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짓 예언자들은 평화와 번영과 복만을 외치고 있었다. 이 때 참 예언자 미가가 등장한 것이다.

### 4. 메시지

예언자 미가의 메시지의 절정이자 진수는 미6:6-10의 말씀이다. 이 본문은 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정답을 제공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곧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도 바른 답을 제공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선이다. 히브리어로 토브(tov)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한 행위를 요구하신다. 여기서 선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

은 첫째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셋째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제물을 갖다가 바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는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일 년된 송아지에서 시작하여 천천의 숫양, 만만의 강물같은 기름, 내 맏아들, 내 몸의 열매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삶 가운데 윤리와 도덕이 하나도 실천되고 있지 않는데 천천의 숫양이면 뭘하고, 만만의 비싸고 값진 감람유는 무슨 의미가 있고, 설사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자신의 맏아들을 볼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아니 자신의 몸의 모든 열매를 여호와 하나님께 다 드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라고 말한다. 여기서 예언자 미가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쉬(ish) 대신에 아담(adam)을 사용하고 있다. 아담은 개인 한 사람(a man)를 뜻하기도 하지만 인류(mankind) 전체를 뜻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류의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예언자 미가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다. 그렇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선이란 바로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자. 정의란 히브리어로 미쉬파트(mishpat)라고 한다. 이것은 공평한 것을 말한다. 삶에 대한 바른 태도를 말한다. 모든 일에 공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예언자 미가도 “정의를 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인자란 히브리어로 헤세드(hesed)라고 한다. 인자는 곧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품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미가는 왜 사람을 사랑하고 라고 말하지 않고 인자(hesed)를 사랑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의 인자(hesed)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에 인자(hesed)를 사랑하라고 한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에게 나온 인자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실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와 사랑은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정의 없는 사랑은 동정심이 될 우려가 있고 사랑 없는 정의는 냉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간관계가 정의와 사랑으로 맺어지면 다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겸손하게 히브리어로 하츠네아(hatsneah)라고 한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겸손하다 차나(tsanah)에서 파생된 부사다. 이 히브리어 차나(tsanah)는 지체롭다 신중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겸손은 하나님과 지체롭게 신중하게 동행하는 것이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선(tov)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23:23절에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정의(義)와 긍휼(仁)과 믿음(信)을 버렸다고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미가의 겸손을 믿음(信)으로 대체하셨다. 그렇다고 다른 말이 아니다.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다. 겸손과 믿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형식만 있는 예배, 마음은 없고 제물만 가득한 예배. 이것이 종교적인 윤리와 도덕을 망각하고 오직 종교적인 의식으로 윤리와 도덕을 대체하여 평화와 번영과 복만을 받으라는 종교지도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갖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태도였다. 미가 당시 사회에는 어느 누구 하나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없었다. 사회적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헤세드(hesed)는 변질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기보다는 목이 뻗뻗하고 교만한 자들 뿐 이었다. 이러한 때에 미가는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선포하며 경고하였던 것이다.

#### 4. 결론

미가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여호와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유일한 예언자이다. 미가와 같은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미가서 6장 6-8절 말씀은 아무리 곱씹어 먹어도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 진수를 가르쳐 준 말씀 중의 말씀이다. 예언자 미가의 뜨거운 가슴이 우리의 가슴이 되기를 소망하며...♠



민경수 교수  
 뉴욕장신 실천신학 교수  
 Assemblies of God Theological Seminary(D.Min., M.Div.)  
 서울대학교(MA, B.A.)

## “어떻게 전도? 신앙인은 신발을 두 번 벗어야 합니다”

20세기 초반 프랑스화가 조르주 루오(Georges Rouault, 1871-1958)는 살아있는 예수에 대한 자신의 심오한 신앙을 초상화로 표현하고자 애썼습니다. 그의 화실은 수천 점의 예수초상화로 넘쳤습니다. 왜? “내 인생의 목표는 감동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입니다. 누구든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즉각적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는 성자의 얼굴 (La sainte face, vers 1946)이란 불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그림과 같이 전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전도를 할 수 없을까요? 저항할 수 없이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현 시대와 문화에 맞는 전도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는 없을까요? 이를 위해 신앙인은 신발을 두 번 벗어야 합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출 3:5)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음에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시선이 머무는 비신자 앞에서 신앙인 자신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C. 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 (The Weight of Glory)”란 책안에서 인간의 영혼에 대해 웅변적으로 서술합니다. “성만찬 못지 않게 거룩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과 말하고 있는 사람의 영혼으로 아마도 여러분이 접하는 가장 거룩한 존재일 것입니다.” 전도자의 의도를 위한, 그리고 전도자의 방식을 강요하려는 자세 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전도자들이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눈물겹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비신자들에게 불편하고 혐오가 되며, 만약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있다면?

전도하며 지을 수 있는 죄들로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마치 13세기 수도사들이 규정한 7가지 영혼의 성장에 치명적인 죄악들 (The Seven Deadly Sins): 교만·탐욕·사음(邪淫)·노여움·탐식·질투·나태 (pride, covetousness, lust, anger, gluttony, envy, and sloth)에서 어느 누구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경우와 흡사합니다. 우리는 후기기독교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과 비신자들 사이의 의사소통규칙들이 급격히 변하는 혼란스런 새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교회들이 사용해오던 메시지와 방법들이 지금은 추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1) 음모 꾸미기 (scheming)

학생들이 밤과 주말에 사역훈련을 받는 동안 경비를 스스로 벌기 위해 여름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치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장막짓는 일을 하며 복음사역을 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주인들을 특별한 “사은 디저트”에 초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고용인들이 특별한 명예와 대우를 받을 것으로 믿게 해놓고는 정작 그 날의 행사는 그 고용인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Bait-and-switch (미끼 상술)이었지요. 어느 누구도 속임을 당하거나 바보취급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부정직한 음모를 사용하도록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 2) 머리가죽사냥 (scalp hunting)

전형적인 머리가죽사냥꾼은 그의 모든 열정을 예수를 위해 하루에 할당된 영혼을 채우려는 데 사용하는 종교적 열심당원입니다. 이들에게 비신자들은 자신들의 트로피수집에 하나 더 채워지는 트로피에 불과할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신자들은 이들의 올가미나 복음총의 조준망에 걸려들었다고 느낍니다. 이들 머리가죽사냥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신자들이 구원을 받던 안받던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사실뿐입니다. 구세주를 증거하는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뿐입니다.



### 3) 날카롭게 소리지르기 (screaming)

예비기독교인의 속을 뒤집는 또 다른 장면은 지나가는 군중들에게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욕을 하거나 저주하는 전도자일 것입니다. 그에게 사람들이 듣고 안듣고는 안중에 없습니다. 그는 한참 외친후 그곳을 뜨며 “나는 증거할 내 할 말을 다했다” 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목소리를 높히진 않아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무의식적으로 예비신자들의 속을 뒤집는 종교적 교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사실은 소리지르지 않는 전도적 죄입니다.

### 4) 마치 예수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예수를 팔기

신제품개발자와 유명연예인을 팀으로 내세워 생활에 혁신을 가져올 보증된 신상품이라고 선전하는 장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왜 오늘 이 순간에 구입해야 하는지 101가지의 이유를 제시하며 목청을 돋굽니다. 어떤 택시기사는 자신을 예수를 위한 판매원으로 생각합니다. 30분간 운전하며 그 사이에 손님들에게 복음을 아주 잘 설명해줍니다. 말할 것도 없이 고객의 대부분은 고압력의 복음판매에 포로가 되는 현실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예비신자들을 영생 보험의(an eternal-life insurance policy) 잠재적 고객으로 취급하려는 유희이 오늘날 우리의 시장주의 문화에서 매우 강합니다. 알것은 신앙인답게 잘 사는 생활이 복음판매보다 보다 믿음직스럽고 보다 설득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 5) 집요하게 추근대기 (stalking)

집요하게 추근대는 사람인 스토키(stalker)는 잠재적 목표물을 홀로 놔두지 않는 과잉 열정의 기독교인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듣기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아주 열심히 계속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려 할까요? 마치 열대어 탱크에 상어를 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모든 물고기들이 사라집니다. 스토키의 문제는 ‘No’란 단어를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경계선이 침범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 6) 훈계하기 (sermonizing)

훈계하는 사람은 모든 해답을 알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훈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설교하고 토론하고 사람들을 교정하려 합니다. 그의 모토는 “이 분야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이 필요없어. 왜냐하면 결국 나를 찾았으니 말야” 입니다. 피터 버거 (Peter Berger) 는 이러한 스타일의 전도를 지적합니다. 이는 특정한 교만과 (나는 진리를 알아!) 자선의 (나는 너를 구원하길 원해!) 혼합으로, 전형적인 전도활동의 심리적 표징이 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뉘새를 1마일밖에서도 말할 수 있으며, 한번 큰 뉘새맡고는 수마일 바깥으로 날라가 버립니다.

### 7) 방관하기 (spectating)

방관하기는 이 모든 전도적 죄들 가운데 가장 최악의 죄입니다. 위의 6가지 다른 죄들은 적어도 상당부분 “좋은 의도” 에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방관하기는 거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아예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지 바나에 따르면 57%의 기독교인들이 친구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일례로 남침례교인중 92%가 일평생 한명에게도 예수에 대해 전하지 않고 죽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 2:13-16).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맞았던 전도방식이 이제는 낙후된, 아니 오히려 상대방과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에 맞는, 그리고 현시대의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그리하여 어떤 영적수준에 처해 있는 예비기독교인(pre-Christian)이라 할지라도 “저항할 수 없이(irresistible)”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발을 이미 벗었으나, 계속 벗으려 매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려 힘쓰듯이, 거룩한 존재인 예비신자들의 심령 앞에서도 자신의 신발을 거듭 벗으려 애쓰는 신앙의 지도자들, 전도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건전지의 +, - 가 양극이 되어 자기장과 전기장을 발생시키듯이, 문화와 복음이 양극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도 막힘없이 흘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줄 수 있는 “전도의 장 (field of evangelism)”을 제공하는 신앙의 지도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 뉴욕장로회 신학대학(원) 31회 학위수여식 및 졸업예배 소식



본교 제 31회 학위수여식 및 졸업예배가 6월 8일 오후 6시 뉴저지 하베스트교회(담임 김영호 목사)에서 열려 7명의 교역학석사(M.Div.)와 6명의 신학학사(B.Th.)를 배출했다.

이날, 담임 목사와 가족, 친지들의 뜨거운 축하를 받으며 교역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구정모, 김현미, 박대호, 이경세, 이정희, 정신범, 현윤희 학우, 신학사 학위는 오영숙학우가 받았다.

KPCA총회가 직영하고 뉴욕·동북·뉴저지 3개노회가 함께 운영하는 뉴욕장로회 신학대학의 졸업식은 인도 이기백 목사(학감), 기도 이수영 목사(동북노회장), 성경봉독 이상호 목사(뉴욕노회장), 찬양 뉴욕신학교 중창단, 설교 한세원 목사, 학사보고 이기백 목사, 학위수여 학장 유재도/이사장 안찬수 목사, 선물증정, 시상, 권면 학장 유재도 목사, 연혁보고 임선순 목사(총무처장), 격려사 김홍채 목사(뉴저지노회장), 축사 신상필 목사(동문회장), 답사 이정희 학우, 광고 임선순 목사, 축도 송병기 목사(전 학장)의 순으로 진행했다.

전 학장이며 증경총회장을 역임한 한세원 목사가 맡아 "예수의 선한 일꾼(딤후 4장 6-15)"의 설교를 통해 "선한 일꾼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 경건연습에 힘을 쏟는 자. 둘째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자. 셋째 솔선수범하며 언행 일치, 신용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하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나타내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유재도 학장은 사도행전 11장 21절을 졸업생들에게 소개하면서 '이제 힘있게 달려가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김홍채 목사(뉴저지노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언제 하나님이 쉽다고 했는가라고 되물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 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염려와 근심은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담대하게 일하면 승리할 것이다."라고 격려했다.

동문회장 신상필 목사는 "여러 학문 중에서 신학을 선택한 것, 뉴욕장로회신학대학을 졸업한 것, 주님과 천국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는 축사를 전했다.

이정희 졸업생은 답사를 통해 "이제부터 나는 죽고 성령께서 살아 일하실 것이며 저는 작은 등불과 소금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선배들과 교수들에게는 채찍을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분교에서 졸업한 신학사(B. Th) 졸업생 5명(김진의 김태정 김평일 오길순 오보양)은 아프리카 현지의 개인사정으로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10월경에 졸업식을 개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 뉴욕 장신대학(원) 후원 안내

뉴욕 장로회 신학대학은 학교 발전 기금과 학교 건축 기금 두 가지 기금을 모읍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의 기도와 동참을 바랍니다. "Pay to the order of NYPTS"

### 학교 발전기금

번호	헌금하신 분	금 액	헌금일자
1-4	소 계	\$ 16,500.00	2-28-14까지
5	무 명	\$ 300	5-13-14

### 학교 건축기금

번호	헌금하신 분	금 액	헌금일자
1-14	소 계	\$ 14,200.00	4-1-14까지
15	KPCA 여전도회연합회	1,500.00	5-13-14
16	유재도 학장	2,000.00	6-15-14

※ 신학교 발전 및 건축 기금을 위해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뉴욕 장신 뉴스레터” 발행인 : 학장 유재도 / 편집장: 학감 이기백 / 편집차장 : 총무처장 임선순  
뉴욕 장신 뉴스레터는 일년에 4번 발행됩니다.

# 뉴욕장로회신학대학 학술세미나

양춘길 목사

## 이민목회의 현재와 미래

임성빈교수(한국장신대)

## 교회리더쉽의 개발



일시 : 8월 24일(일) 오후 5시 30분 - 9시 30분

장소 : 뉴욕장로회신학대학 예배실  
(뉴저지 하베스트교회내)

주소 : 370 Demarest Ave., Closter, NJ 07624

### 프로그램 및 시간표 (2014년 8월 24일 주일)

5:30 - 7:00	이민목회의 현재와 미래	<p>강사: 양춘길 목사 (필그림 교회 담임목사)</p> <p>&lt;약력&gt; Calvin Theological Seminary Th.M.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M.Div. University of Illinois B.S. 뉴저지실버선교회 대표 GP선교회 미주이사 및 국제협의회장 PGM(세계전문인선교회) 이사장</p>
7:00 - 8:00	<b>저 녍 식 사</b>	
8:00 - 9:30	교회 리더쉽의 개발	<p>강사: 임성빈 교수 (한국 장로회 신학대학(광나루))</p> <p>&lt;약력&gt;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Ph.D, 장로회신학대학 Th.M., M.Div., 문화선교연구 위원장 기윤실 공동대표</p>